

영광군, 전입 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

영광군은 28일부터 관내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구 늘리기 전입 장려금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해 온 전입 장려 시책은 전입자들이 느끼는 체감도와 실효성이 떨어지고 다른 지자체 지원에 비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군은 제2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전입 지원 장려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혜택을 확대하여 인구 늘리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 지원기준 ▲ 국적 취득자 지원 신설 ▲ 지원내용 강화 ▲ 지급방법 등이다. 기존에는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이

국적취득자 지원 신설 · 장려금 상향 지원

영광바로알기 투어 등 다양한 시책 마련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신고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강화했다.

반면 지원 내용은 더욱 풍성해졌다. 특히 국적 취득자 지원을 신설하여 정착 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 전입자에게는 신청이 저조했던 기존 6개 항목의 지원시책을 폐지하고 세대 구성 시(세대 당) 전입 장려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기업체 임직원에게는 생활용품

구입비 15만원, 학생과 군장병에게는 학비 지원금과 전입 장려금으로 각각 20만원을 상향하여 지급한다.

아울러 모든 전입자에게는 타 지역에 1년 이상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경우 1인당 쓰레기봉투(20리터) 20매를 지급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영광바로알기' 투어 제반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지급방법도 계좌송금에서 영광사랑상품권 지급으로 변경된다.

전입 장려금 신청은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입지원 시책을 통해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 앞으로도 '내고장, 내직장 주소갖기 운동',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등을 전개하여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올해 인구일자비정책실을 신설하여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장려금 제도를 신설하여 130쌍의 부부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285명에게 생애양육비 지원, 9쌍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출산정책 시행으로 올해 출생아 수 증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나주시, 공직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올바른 심폐소생술 ·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나주시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공무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총 9회에 걸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생명을 살리는 골든 타임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관내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호흡확인, 흉부압박, 119신고 등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비롯해 일상생활 심혈관 질환 예방수칙 등을 안내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평소 심폐소생술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지 실제로 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내 가족,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주 나주시보건소장은 "응급요청을 숙지하고, 관내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호흡확인, 흉부압박, 119신고 등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비롯해 일상생활 심혈관 질환 예방수칙 등을 안내했다."

함평군, 2019 친환경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7월 5일까지 농업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현장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 9개 읍·면 마을회관 등 총 72개소에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작목별 전문지도사 26명이 참여해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작목별 생선비 절감 실천기술 등 농정현안을 집중 교육한다.

특히 교육이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농가현장의 애로사항도 1:1 컨설팅을 통해 적극 해소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7일 현장영농교육에 참여할 강사진을 대상으로 벼, 고추, 참깨 등 작목별 주요 현안과 농산물재해보험, GAP, 농작업 진드기 매개 예방교육 등의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항만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서해안을 중심으로 멸강나방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각 작목별 병해충 방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지역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준 기자

담양 가시문학면 생오지마을, '울력'으로 마을자치 활성화

주민 25명 참여 마을 안길 · 화단 잡초 제거



담양군 가시문학면 생오지마을에서는 주민들의 공동 노동 협력 방식인 울력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마을 자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울력은 전통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공동체를 위한 일을

함께하는 것이다. 무보수의 노동력 봉사라는 점에서 노동의 교환방식인 두레나 품앗이와는 다르다.

생오지마을은 지난 24일 최중찬 이장과 마을 주민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 안길과 화단의 잡초를 제거하는 울력을 실시했다.

마을에서는 매년 모내기가 끝난 후와 추석이 가까워호 각 1명 이상 울력에 참여한다는 마을 자치규약을 정하고, 마을 안길 풀베기와 잡초제거 등을 함께하며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운영하는 마을자치를 실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마을 자체적으로 주민 실천사항을 만들어 자기집 꾸미기와 특색 있는 꽃 살기, 쓰레기 소각 금지 및 분리수거 실천 등 마을 자체 소득을 증대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최중찬 이장은 "마을에서 실시하는 울력은 예로부터 주민들의 결속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상수도 수질 점검하고 관로 청소

최근 인천의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화순군이 상수도 수질 검사와 관로 청소에 나섰다.

군은 상수도가 공급되는 화순읍 등 12개 읍·면 지역에서 상수도 수질 점검과 상수 관로 청소를 한다.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 군은 최근 인천에서 적수 현상이

발생하자 적수 현상이 의심되는 관로 등을 중심으로 관로 청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질 점검은 28일부터 6월 28일 3일간 한다. 상수도 관망과 적수 발생 의심 구간을 무작위로 선정해 마을 이장과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탁도, 잔류 염소 측정 등을 검사한다. 오는 7월 4일까지 9일간 시행할

예정인 관로 청소는 상수 관로를 설치한 지 오래된 지역과 적수 발생 민원이 있었던 지역이 대상이다. 군은 소화전과 이토면에서 퇴수 작업을 해 관로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식수 관련 사고로 불안감을 느낄 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신뢰감을 드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장성군, 벼 병해충 공동방제 효과 '톡톡'

장성군이 올해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공역방제기와 드론을 사용해 공동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은 지난 2015년 국내 최초로 이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이르고 있으며, 매년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작년엔 군은 도내 평균 병해충 피해를 12%보다 3%이내로 경감 시킴으로써 금액으로 환산 시 약 40억원 규모의 피해를 방지했으며, 쌀 수확량 역시 작년 단보당 524kg로 도내 1위를 기록했다.

공동방제는 올해 쌀소득 직불제를 신청하였거나,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일반 벼 재배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읍면별로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중점 방제기간 중 일제히 농약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기준은 1ha당 15만 원이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하면 인손부족으로 인한 방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장성군은 인구의 약 3분의 1 가량이 농사를 짓는 도농복합도

시다. 그 가운데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8% 이상으로, 갈수록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공동방제는 고령 농업인의 방제를 돕는 한편, 지역 내 쌀 생산 비용까지 절감시킬 수 있어 일석 이득이다.

이밖에도 공동방제는 농약의 오·남용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를 전면 시행하고 있어, 군은 방제단과 도우미 등 사업에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 교육과 병해충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현재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대한 읍면별 수요조사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7월 10일까지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희망하는 농가는 이 기간 내에 읍면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은 농가 고통화에 따른 방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생산비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